

“해태는 단순 야구팀 아닌 ‘광주恨’ 풀어준 매개체”



광주출신 소설가 김경욱 5·18 다룬 ‘야구란 무엇인가’ 출간



야구장은 소통공간이자 시민의 광장... 총 9장으로 구성

로만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아니듯, 소설 또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모험이 있다.

소설은 광주 이야기이지만 야구 이야기의 중심은 전제된다. 작가는 80년 5월에 ‘불들린’ 사내를 불러내, 오늘 우리에게 ‘오월 광주’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80년 광주는 꼭 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늘 해태 타이거즈가 떠오릅니다. 단순한 팀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광주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80년 5월, ‘열소’라는 계엄군에 의해 남동생을 잃은 사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잊기 위해 타이거즈 중계를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가슴에 묻은 아들을 잊지 못해 화병으로 죽는다.

설상가상 사내의 아내도 집을 나가 버린다. 어머니가 손자를 키우지만 불행하게도 심장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사내에게는 가혹한 현실과 돌봐야 할 어린 아들이 덩그러니 남겨진다. 사내는 이 모든 것이 계엄군 ‘열소’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복수를 위해 갈을 준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가리까지 챙긴다. 사실 사내는 자신이 경기를 보면 타이거즈가 질까봐 중계도 8회까지밖에 못 보는 유약한 인물이다. 어쩌면 그는 피해자이면서 ‘죄인’처럼 살아왔던 광주시민을 상징하는지 모른다. 아니 광주시민의 모습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아픈 이야기이다 보니, 이 시대를 겪어보지 않는 세대와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오월 광주’ 이야기는 임철우, 문순태 등의 선배 작가들이 일찍이 썼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구 이야기를 접목시키게 된 거구요.”

사내는 서울에서 우연히 계엄군을 만나지만 복수를 실행하지는 못한다. 아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면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바람에 무위로 끝난다. 결국 사내는 아들과 함께 집(홈)으로 돌아오게 된다.

“진심 어린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 운운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베’ 등의 역사 왜곡 논란까지 불거져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가는 광장이 봉쇄된 80년대 야구장은 소통의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도청, 망월동, 무등경기장은 응어리를 발산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이었다.

그렇다면 2013년 오늘 우리에게 야구란 무엇인가? 시즌 초반 반짝했다 하강곡선을 그리는 타이거즈를 보는 시민들의 심사가 그리 편치 않은 양상을 띠고 있다. 타이거즈의 부활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檢 ‘전두환 금고’ 7개 압수... 채용씨 빌라 압류

전씨 주변인물 47명 증권거래 내역 정밀 분석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시중은행에서 전씨 일가 명의의 대어금고 7개를 확보해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차남 채용씨가 거주하는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 한 채와 채용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를 압류했다.

검찰은 전남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해 대어금고를 찾아내고 보관 물품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전씨 측 대어금고 재산과 비자금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전씨 일가의 숨겨진 예금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직접 명의자로 된 금고는 없었으며 명의자는 전씨의 차남 이창석씨 등 7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금고에서는 전씨 일가 명의로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각종 입출금 및 송금 자료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어금고는 화폐와 유가증권, 귀금속,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이 빌려주는 소형 금고로 책상 서랍과 유사한 형태이다.

검찰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고 개설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씨 일가의 예금 예치 실태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채용씨가 거주하는 고급 빌라 한 채를 압류했다. 이 빌라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다.

검찰은 채용씨가 대표이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고급 빌라 2채를 사들인 지인 N(여)씨를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엘에셋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N씨 부부에게 빌라를 매각했다.

비엘에셋은 빌라 2채의 시세가 총 40억원대이지만 급매로 내놓으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해 모두 3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빌라들도 일단 압류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했으며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 3부자의 최근 20년간 증권 관련 입출금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 전씨 일가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전씨 일가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등 47명의 증권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지방재정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취)는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취득세 인하방침에 與野 한목소리 정부 비판

황우여 “지자체 재정부터 해결” 이응섭 “무책임 극치”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가 항구적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 세수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며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이 같다”면서도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재정절벽이라는 필박한 현상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응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갑작스런 정권 3조원 상당 세수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며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

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마닐라 정기노선 오늘 첫 취항

주 2회·8월 필리핀 세부·중국 마카오 등 예정

무안 국제공항에 중국 노선에 이어 필리핀 마닐라 노선도 취항한다. 전남도는 25일 “무안-마닐라 간 동남아 정기노선이 25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주 2차례 운항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노선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며, 기종은 A320, 탑승정원은 156명이다. 무안공항에서 동남아 정기노선 취항은 지난 2007년 11월 개항 이후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 운항노선은 제주, 상하이, 베이징 등 3개 정기노선과 텐진·심양 등 2개 정기성 전세기, 방콕·하노이·오사카 등 10개 부정기 노선이 있다. 하루 최대 항공기 6편이 이·착륙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가철 성수기인 8월 중에는 필리핀 세부, 중국 마카오, 일본 북해도, 베트남 다낭 등 부정기 노선 운항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의 1544-171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광부, ‘아시아 언론인과의 대화’

30일 광주문화마루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30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아시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연다.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을 초청해 아시아 민중들의 삶에 녹아든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조명한다.

박봉남 다큐멘터리 감독이 ‘다큐멘터리 기록자가 바라보는 아시아, 그 머나먼 희망찾기’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노우에 게이코 일본 구마모토방송 기자가 ‘출구 없는 길-한센병으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성찰’을 발표한다. 이어 치료할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한·일 주변국 상황을 분석한 동아시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 *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함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본점 | 공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계림동,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0130-공-26%0.

전역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상,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용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